멸도 않으면서도 방편으로 멸도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㉕ 보살도로 이룬 부처님의 수명

"선남자들이여, 여래가 설한 경전이 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니라. 혹은 자기의 부처 몸을 설하며, 혹은 남의 부처 몸을 설하며, 혹은 자기 몸을 보이며, 혹은 남의 몸을 보이며, 혹은 자기 일을 보이며, 혹은 남의 일을 보이나, 모든 말이 진실하여 거짓 없느니라.

여래는 삼계의 모든 현상을 사실 그대로 아나니, 나고 죽는 생사의 경계에 나오거나 물러감이 없고, 또한 세상에 있는 것도, 열반에 드는 것도 없어서 진실이라 할 것도 없고 거짓이라고 할 것도 없으며,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 중생이 삼계를 보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니라.

온갖 중생들이 갖가지 성질, 갖가지 욕망, 갖가지 행실, 갖가지 생각과 분별이 있는 탓에, 온갖 선근을 내게 하고자 하여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와 언사로 온갖 방편으로 법을 설하여 부처의 일을 하되, 잠시도 쉰 일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내 성불한 지 그 매우 오래되어, 수명이 한량없는 아승지겁이라 항상 그대로 있어 소멸되지 않느니라.

선남자들이여, 내가 본래 보살의 도를 행하여 이룬 수명이 지금도 아직 다하지 않아 다시 위에 말한 수명의 배나 되느니라. 그러나 이제 참으로 멸도하는 것이 아니면서도 곧 이르기를 '장차 멸도를 취하리라' 하노니, 여래는 이런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느니라.

왜냐하면 만약 부처님이 오래도록 세상에 머문다면, 박덕한 사람들이 선근을 심지 않아 가난하고 천해지며, 오욕에 탐착하여 허망된 생각의 그물에 걸릴 것이며, 만약 여래가 항상 머물러 멸도하지 않음을 보면, 교만해지고 싫증을 내어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과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부처님을 법의 근본(法本)이라 하고 법의 주인(法主)이라 한다. 부처님을 말미암아 법이 설해지고 법을 들은 중생이 교화되고 제도된다는 것이다. 부처님이 하시는 일(佛事)은 법을 설하는 일이다. 설한 법이 중생에게 전해지고 보여지는 것이 경전이다. 중생이 경전을 통해 법에 들어가고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대승경전에서는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언제나 삼매에 들어가신다. 〈법화경〉은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에 드시고 〈화엄경〉은 해인삼매(海印三昧), 〈금강경〉은 등지삼매(等至三昧)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삼매의 언어다. 다시 말해 탐, 진, 치 따위의 번뇌가 없는 마음에서 설해진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중생에게 약이 되고 감로수(甘露水)가 되는 것이다. 이 장(章)에서 부처님이 하신 특별한 말은 '보살도를 행하여 이룬 부처님의 수명은 다하지 않아 멸도하지 않으면서도 방편으로 멸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본래 열반에 들지 않는데 방편으로 열반에 든다는 말로, 생사의 경계로 말하면 죽지 않으면서 죽는다는 말이다. 이는 〈열반경〉에 설해진 말과 맥락을 같이한다. 〈열반경〉 대의를 불신상주설(佛身常住說)을 제1로 친다. 부처님의 몸이 없어짐이 없이 항상 그대로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부셔지지 않는 몸이라 하여 금강신(金剛身)이라 한다. 〈월유품〉에는 달이 서산에 지는 것과 같아 이 세상에서 지는 것이 저 세상에서 뜨는 것이라는 비유가 있다. 비록 육체의 죽음이 있더라도 육체가 참 생명이 아니며, 법신의 참 생명은 불생불멸이라는 뜻이다. 대승불교가 일어나고부터 새로운 불신관(佛身觀)이 등장하게 되었다. 초기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생신(生身)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으로서 부처님 역할이 중요시되어 가르침이 존중되고 찬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대승불교에 와서는 처음에는 반야부 경전 등에서는 영구불변하는 실체를 부정하였기 때문에 부처님을 초월적 존재 또는 신앙의 대상으로 상정하지 않다가 뒤에 와서는 부처님을 영원한 존재로 인식하고 부처님에 대한 공양, 예배 등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부처님을 초월적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민간신앙에서는 부처님을 신(神)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농후해졌다. 비록 부처님을 삼신(三身)으로 설명하지만 법신(法身)이 진불(眞佛)이므로 〈법화경〉이나 〈화엄경〉은 법신 공덕 위주로 법을 설하고 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생명 가진 존재 이롭게 하는 '계'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㉕ 요익유정계

어린 시절에 누구나 한 번쯤 쉘 실버스타인(Shel Silverstein)의 그림동화인 〈아낌없이 주는 나무(The Giving Tree)〉를 읽어보았을 것이다. 이 책에서 나무는 한 소년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면서 행복해한다. 나무는 소년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되어주기도 하고, 돈이 필요한 그에게 사과를 내어주기도 하고, 집이 필요한 그에게 나뭇가지를 내어주기도 하고, 배가 필요한 그에게 나무줄기를 내어주기도 하고, 편안히 쉴 곳이 필요한 그에게 나무 밑동에 앉아서 쉬라고 한다.

동화 속의 나무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 어떤 이는 소년에 대한 나무의 사랑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과 비슷하다고 여긴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면서 행복해하는 나무보다 적당한 선에서 거절하는 나무가 더 나을 것 같다고 하기도 한다. 자신의 모든 것을 소년에게 다 주어버린 나무는 다른 이에게 줄 것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나무가 소년에게 나뭇가지와 나무줄기를 내어주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누군가의 놀이터일 것이고, 누군가에게 사과도 계속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필요한 것만 나무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소년이 얄밉게 느껴지기도 한다. 사실 자기 잇속만 차리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삶을 살기란 그리 쉽지 않다. 헌신적인 삶을 사는 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대하는 이도 있지만, 대부분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진한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면서 진심으로 행복해한다면 요익유정계(饒益有情戒)를 실천하는 보살일 것이다. 이 계는 섭중생계(攝衆生戒)라고도 하는데,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는 계이다. 〈유가론(瑜伽論)〉에서는 구체적으로 11가지 행위를 제시하고 있다. 즉, ①이익을 수반한, 다양한 중생들의 행위에 대해 조력자가 되며, ②계속해서 생겨나는 중생들의 병고 등을 간병하는 조력자가 되며, ③세간적인 이익과 출세간적 이익들에 대해 법의 교설을 선행요소로 하고 방편을 가진 설명을 선행요소로 하는 바른 이치를 설명하며, ④은혜를 베풀었던 중생들에 대해 받은 것의 앎을 보호하는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일으키며, ⑤사자와 호랑이, 왕과 도둑, 물과 불 등의 다종다양한 공포를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중생을 보호하며, ⑥재물과 친척으로 인한 괴로움에 빠진 자들에게 비탄을 제거하며, ⑦생필품이 결여된 중생들에게 모든 생필품을 제공하며, ⑧이치에 맞게 올바른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여법하게 대중을 인도하며, ⑨언설과 담론과 축하를 위해 적당한 때에 그곳으로 가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받으며, ⑩세간적인 이익을 설명하며, ⑪소환되었을 때에 오가는 것이다.

이 11가지 행위는 요익유정계의 예시로 볼 수 있으며, 중생을 이롭게 하는 모든 행위가 이 계에 해당할 것이다. 이처럼 바람직한 대승 보살의 삶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동경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 오히려 자신의 요구를 흔쾌히 들어주는 이가 없다고 한탄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이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려면, 적어도 동화 속의 소년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이전에 나라면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① 괴로움 원인과 윤회 비밀 (상)

우리가 태어난 원인은 業 때문

불자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든지 괴로움이 있습니다. 혹시 나의 괴로움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나 조상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회나 국가를 원망하며 세상 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함께 사는 가족이나 헤어진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이 생긴 원인은 그도 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괴로움의 원인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결코 괴로움을 벗어나 참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괴로움의 원인이 남 탓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악업인 동시에 또 다른 악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불자여러분! 괴로움이 생긴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바로 내가 세상에 태어난 비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바르게 알게 되면 괴로움의 비밀도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불자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원인은 바로 내 스스로 지은 업(業) 때문입니다. 그리고 업을 짓는 원인은 무명(無明) 업식(業識)으로 인한 애욕과 갈애(渴愛)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중생은 무명 때문에 마음이 오염되어 애욕과 갈애를 일으키고 마음의 장애로 탐진치 삼독심을 일으켜 삼업(三業)을 지었습니다. 그 업력으로 인해 윤회하며 중생의 몸을 받아 또 이렇게 중생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業 원인, 무명 업식으로 인한 갈애 때문
진여본성, 무명으로 인연에 따라 생멸해

이렇게 끝없이 업을 짓는 주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의 의지 즉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불교 유식학에서는 이 마음을 심(心), 의(意), 식(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심은 제8아뢰야식(阿賴耶識)을 말하고, 의는 제7말나식(末那識)을 뜻하고 식은 제6의식(意識)을 의미합니다. 제8아뢰야식과 제7말나식은 심층의식인 무의식에 해당하고 제6의식은 표층의식인 의식을 뜻합니다. 이 중에서 무의식인 제8아뢰야식이 바로 업의 주체이며 윤회의 주체인 것입니다. 인간이 제 각기 모습과 제 각각의 삶을 살아가며 불평등한 것도 바로 이 지은 업이 다르고 지은 업으로 만들어진 제 각각의 아뢰야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자여러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뢰야식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에는 두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념의 청정심인 진여본성과 또 다른 하나는 망념을 일으키며 생멸하는 오염된 중생심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 "마음의 본성은 항상 망념이 없는 무념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마음의 본성은 불생불멸하여 항상 청정한 무념인 진여법신입니다. 그래서 〈화엄경〉 '야마천궁품'에서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과는 차별이 없다[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고 하여 중생이 가진 마음의 본성은 바로 부처와 똑같은 진여본성임을 설하고 있습니다.

불자여러분! 결국 우리들의 마음 본성은 무량한 공덕을 갖춘 불성의 진여법신인 부처인 것입니다. 이 진여법신은 바로 우주 생명의 근원이며 일체 중생심의 근원이며 일심인 한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무량한 공덕을 갖추고 있는 이 진여본성인 한마음은 무명 때문에 불생불멸의 진여의 모습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인연에 따라 생멸하는 모습을 만들게 됩니다. 이처럼 생멸하는 상을 형성하는 마음을 '아뢰야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8아뢰야식은 불생불멸의 진여본성과 생멸하는 중생심을 함께 아우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청정성과 오염성을 함께 갖춘 이중성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마음이 향기를 내는 책, **법보시 주문**은 02)732-1520 으로 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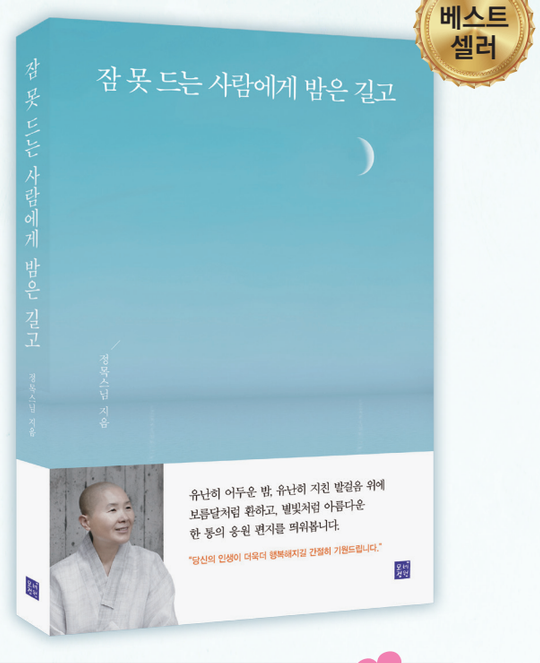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막막하고 불안하고 외로운 당신에게,
정목스님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 같은 이야기들

잠도 안 올 만큼 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선택할지 기쁨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지요.
식당에 가서 원하는 음식을 결정하듯 깨어 있는 사람은 사랑과 미움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기쁨을 원하면 사랑을, 고통을 원하면 미움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용서와 화해로만 풀 수 있지요.
그 용서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잘 용서가 안 된다면 우선 상처 준 그를 향해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정목 스님 낭독 -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이 책의 저자 인세 수익금 전액은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사랑'에 희사합니다.

정목 지음 / 248쪽 / 14,000원⇨ **12,600원** (배송비 별도)

모네의 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